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페미니스트, 총선 현장에서의 경험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1. 페미니스트 활동가에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우리 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가 가사 노동을 하는 집이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발병과 외환위기가 겹치며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도 맞벌이를 생각했던 어머니는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오랜 직장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승진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이중 노동을 하며 키워낸 큰 딸이 여성 리더가 되길 바라셨다. 뭐든지 1등을 하면 좋고, 너희 시대에는 뭐든지 잘 해야 하니까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아이로 만들

기 위해 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시도하게 해주셨다. 남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되라는 격려와 칭찬을 어르신들로부터 받고 자랐던 나는 법조인이나 정치인을 꿈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 는 나에게 더 가까웠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회의를 해야 할 곳에서 치고 박고 몸싸움하는 아저씨들, 그것이 내가 접한 정치였다. 차떼기 뇌물 수수, 떡값이 어찌구 하는 뇌물과 비리의 온상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 흔히 정치 탓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호기로운 패기로 나는 정치인을 꿈꿨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 운동을 접하고 나니 내가 알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이 세상이 모두

*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지배와 피지배로, 착취와 피착취 관계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회를 바꾸기에 부패한 정치는 멀고, 당장의 시위와 대자보는 가까웠다. 그렇게 다 죽었다는 학생 운동에 뛰어든 이후, 결국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와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법이 있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결국 한 명이라도 덜 고통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한 진보 정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진보정당 당원 2년차가 되었을까, 메르스라는 전염병을 타고 인터넷을 통해 페미니즘이 전파되었다. 청년 남성 ‘진보 논객’들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가 공론화되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말이 그 때 등장했다면 어땠을까? 당시에는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피해자 지원이나 건강한 방식의 사건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서운 침묵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진보 정당을 떠나갔다. 어떤 ‘진보’ 정당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가사를 쓴 가수를 정당의 총선 테마 가수로 지정했다.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었다고 사실상 해고된 성우를 지지하는 논평이 중앙당 직권으로 철회되었다. 그렇게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의 집단적 각성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정치와 페미니즘이 강하게 부딪치며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를 만들어냈다. 나 또한 2016년의 페미니즘 물살을 타고 드디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정당이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꼭 후진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주의 선거본부를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고, 페미니즘 물살에 힘입어 오랫동안 활동이 뜸했던 여성위원회가 다시 살아나며 전국 강연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는 당직 선거에서 여성의 자리는 찾기 힘들었다.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여성명부가 아니라면, 여성당원들은 ‘진보적’이라는 당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럴 때면 항상 이미 자리를 차지한 남성 당원들은 ‘대표자 자리를 맡을 여성 당원이 없다’고 말했다. 왜 없지? 기회만 주어진다 하면 할 수 있는 여성 당원인 나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의 나는 대표자의 자리엔 항상 남성이, 그를 보조하는 위치엔 여성이 있는 여러 공간을 보며 웬만큼 특출나지 않고서야 대표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기회만 주어진다 하면, 용기를 불어넣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시절 내가 몸담았던 ‘진보’ 정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성 정치인을, 여성 대표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나 또한 탈당했다. 이른바 ‘페미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페미당에서라면 젊은 여성들이 이리 저리 치이며 감정 노동을 하거나 성희롱을 견디지 않아도 될거라고 생각했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정치의 영역에 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페미당에서 하고 싶었다. 그렇게 차근차근 창당 준비를 하다보니 3년이 흘러 제21대 총선이 다가왔다.

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활짝 열리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다. 그것도 ‘출마한 후보’들에게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다. 젊은 여성인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페미니즘 정치를 전국, 아니 적어도 그 지역구에는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정치 그까이꺼! 하던 패기 넘치는 어린 시절도 생각났다. 못할 게 뭐 있을까? 당돌한 심정으로 한 번 해보자고 결심했다. 솔직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올해까지 당선되면 4선 의원이 되는 건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모두 남성 후보들만 출마했으니, 지역 구민으로서 이번 총선에는 여성 후보가 좀 나왔으면 하기도 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나에게도 출마로 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다.

2. 왜 지역구? 왜 동대문구?

내가 출마한 지역구인 동대문구는 특출나게 젊은 인구가 많이 산다거나, 성평등지수가 높다거나,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아니다. 흔히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출마하여 이득을 보려면 진보적인 가치에 우호적인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은, 선거 득표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은 모든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젊은 여성이고 조직과 돈이 없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 토박이로서 동대문구에서 성장해 왔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야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공간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세 번째로, 오히려 서울의 서쪽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처럼 힙한 문화들이 선도적으로 생겨나는 공간 말고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동대문구에 출마했고, 나름대로 페미니즘 정치에 목말랐던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동대문구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선 선생님을 만났고,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과 만났고, 이문동 재건축 지역에서부터 활동해 온 이문동 공동체 ‘도꼬마리’를 만났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페미니스트 학생들을 만나서 일상에서 어떤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경희여고, 휘경여고, 혜성여고 졸업식에서 여자고등학생들을 만났다. 선거를 계기로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와 알게 되었고 각 대학교 학생대표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도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잘 소화해 냈는지, 정치인으로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선거 운동을 치렀는지를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나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청년 정치인과의 만남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에 출마했던 젊은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2020년에는 정치의 뜻을 접겠다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동대문구 지역 주민으로서, 진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출마한 진보정당의 젊은 정치인이 반가웠던 터라 그가 왜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선거 준비기간 중 이문동에서 지역공동체를 꾸리며 화단을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그는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이 궁금해 그와 약속을 잡고 그가 운영하는 이문동의 작은 반지하 공간에 찾아갔다. 그는 요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이문동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일, 철거 예정인 집에서 나갈 수 없던 주민들을 위해 성당 신부님과 힘을 합쳐 공간을 마련했던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이제 막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나에게 그는 참 대단해 보였다. 공간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묵묵히 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왜 그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는가가 궁금했다.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랬다. 모든 문제는 힘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근원은 권력으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뜻밖의 이야기에 나는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었

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나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여성이 가져본 적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은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직은 가져본 적 없는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일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력을 원하고 또 그 권력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에게 유효하다. 제도적 권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 수많은 권력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권력차에 주목한다. 힘없는 성별을 평등한 위치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제도적 권력이 없다면, 소수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권 운동가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권력을 지향하는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내가 가지려는 권력은 어떤 권력인지, 그 권력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변질되고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4. 페미니스트 후보들과의 연대

이번 선거에서 정말 반가웠던 점은 페미니스트임을 전면에 걸거나 페미니즘 활동을 해왔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꽤 출마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조혜민 후보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으로

로 활동해왔고, 녹색당 비례대표 성지수 후보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손솔 후보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유니브페미에서 활동해왔고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 또한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다양한 공간에서 여성주의 활동을 해왔다. 나 또한 강남역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에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 등에서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던 와중에 페미니스트 청년 정치인들이 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라도 있을 것 같았다. 연락이 닿는 후보들과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다가 일단 모여보기로 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각자가 각자의 정당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느라 함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만남의 순간을 사진 기록으로 남겨서 SNS에 게시할 수는 있었다. 경쟁 중심의 정치판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의 새로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었다.

5.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보 정당 당원들의 융성한 도움

무소속 후보는 동네주민 300명에서 500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용해 옆동네 동대문구를 지역구에서 출마했었던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주민 추천 후보’로 명명하기도 했다.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공천 후보자와 똑같이 기탁금을

내면서 주민 추천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은 불공평했다. 정치 신인이었기에 추천 서명을 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 그래도 동네 상가를 구석구석 돌며 자기소개를 하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민들에게 부탁드렸다. 그렇게 서명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선거운동원들도 동대문구를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렵사리 처음 뵙는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서 거절의 거절을 거듭하며 겨우 서명을 모았다.

주민 추천 서명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문동공동체 도꼬마리 활동가분과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 페미니즘 소모임, 민주당 동대문구위원회 당원들이었다. 민주당 손솔 후보는 내가 무소속 후보자가 치러야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니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죠’라며 민주당 동대문구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민주당 출마자인 오준석 후보와 나를 연결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추천 서명지를 가지고 민주당 동대문구갑지역구 오준석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를 방문했다. 마침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포장하고 있느라 많은 당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서명지를 두고 간 며칠 동안 열 명의 당원분들께서 서명을 해주셨다. 도꼬마리 활동가는 서른 명의 서명을 모아 주셨고,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의 페미니즘 소모임 방문 후에는 다섯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군소 정당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성평등의 가치에 동의해서 일수도 있고, 지역구 여섯 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20대이자 여성인 후보였기 때문도 있었을 것이다. 가부장적인 정치판에서 여성이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전이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녹색당 당원이나 정의당

당원으로 스스로를 밝히신 분들 중에서는 나에게 투표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있었다.

6.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현수막 철거 사건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판에서 더 역올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문동공동체 도꼬마리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전 회기역 사거리에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출근길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던 나와 선대본부장은 9시 쯤 반가운 마음에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런데 그 날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선거운동원 단톡방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 해당 현수막이 성평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정한 선거에 위배된다는 해석이었다. 선거의 기준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인구의 절반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나 공약이 없는 후보자가 과연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자질이 있는 후보자일까? 성평등 공약이 보편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마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에 부합하는가?

페미니스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달 수 있는 문구의 현수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본의 존재 자체가 그 현수막의 내용을 ‘불공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나

는 아마 누군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민원의 주체가 안티페미니스트인지, 경쟁 후보 선거본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민원을 제기한 인식 자체의 후진성 그리고 그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판단이야말로 불공정하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구로 만든 현수막이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도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우연히 창동역을 지나치다가 그 현수막이 아직까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마도 도봉구에는 페미니스트임을 표방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현수막이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말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지극히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7. “가현님이 출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응원과 지지 또한 많이 받았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 SNS 계정의 메시지나 후보자 개인 SNS의 메시지로 응원의 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투블럭으로 머리를 자르면서도 탈코르셋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후보님과 다른 페미니스트 후보자들 덕분에 당당하게 탈코르셋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후보님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요”

“후보님에게 투표한 것이 가장 적극적인 페미니즘 활동이었다”

“페미니즘은 잘 모르지만 딸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후보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모두 응원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젊은 여성의 등장은 그 자체로 용기가 될 수 있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남성들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투표로서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뿌듯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나에게 든든한 지지를 제공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수막 문구나, 선거 벽보의 슬로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동생은 지지글까지 썼지만 선거 운동이 불가한 나이여서 그 지지글을 게시하지는 못했다. 누구는 정치한다고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뜯어말린다던데, 나는 가족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니 가족을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변한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은 ‘네가 결국 뭐라도 나갈 줄 알았다’면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온 가족을 동원해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아주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어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8. 어렵기도, 새롭기도 했던 유권자와의 대화

지난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후보자에 대한 테러행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안티페

미니스트에 의한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안티페미니스트의 비판이나 공격은 생각보다 덜 했다. 자신을 안티페미니스트로 생각조차 않은, 인식이 정제된 가부장적인 유권자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성평등한 나라다, 여자들이 너무 드세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안 따른다, 이렇게 출마를 했으면 성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 성평등은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다 같은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이 턱 막혔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지점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합의할 만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웠다. 선불리 반박하려고 하면 유권자들은 더 마음을 닫았다. 일단 들어야 했다. 유권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시간이 부족해 성평등과 관련해 차분히 듣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간 적은 거의 없었다.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반면, 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유권자들과 나는 상호작용은 오히려 활발했던 것 같다. 우리 선거본부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내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켓을 들고 들어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난 한 남자는 나에게 손수 커피를 타 주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 사람은 동성혼을 인정하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것 같다며 나에게 젊은 사람이니 나라의 앞날을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다.

성당 근처에서 만난 한 모녀는 퀴어문화축제나 동성애가 퍼지면 아동 성폭력도 소수자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말을 걸어오는 시민을 만나는 경험은 새로웠다. 농성장이나 퀴어퍼레이드에서 만나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은 목청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우리 또한 똑같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고 외치며 인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대화로서 피력하고 나의 생각도 물어봐주는 쌍방의 소통을 하고 나니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내 주변에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나라에도 이로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을 인정한 외국의 사례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성당 앞에서 만난 모녀에게는 성폭력 가해자와 성소수자는 다른 개념이고,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모녀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내가 깊이 있는 이론이나 가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나는 이 대화들이 의미있었다고 느꼈다.

나는 그 대화를 통해 그동안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겨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놀랐다. 지난 수십 년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만들어 낸 성과였다. 또, 결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질문이 페미니스트 정치인에게로 왔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정치와 퀴어 정치는 만날 수밖에 없고 교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9. 선거 결과, 그리고 페미니즘당 창당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선하고도 멋진 충격을 주었던 신지에 후보는 동대문구 전체에서 약 2,400표를 얻었다. 나는 이 결과를 보고 적어도 페미니즘의 가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표를 던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구 전체에 2,400명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동대문구를 절반으로 나눈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서는 1,200명의 지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랬을 때 우리 선거 본부가 세운 목표는 3,000표였다. 시간이 흘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지지할 것이며 또 그런 반응을 끌어내 보자는 모두의 결심이었다.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개소식도 하지 못하고 유권자들과 악수 한 번을 하기 어렵고 이야기조차 나누기 어려웠지만, 정책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거듭했다. 그래서 선거 결과, 2,009표를 득표했다. 목표한 득표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명의 후보 중 상상도 못한 3위라는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우선, 2017년부터 준비해왔던 페미니즘당 창당을 올해 여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성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배제 없이, 나중 없이, 차이가 차
별이 아니라 연대의 지점으로 바뀌는 공존의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여성주의 정당의 창당이 눈앞에
있다. 나 하나의 도전이 아닌,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 나아가야겠다.